

# 우리나라 친족관계에 있어서 선택성과 교환성에 관한 연구\*

— 도시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

이광자\*\*

I. 서론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1. 문제의 제기	4. 조사도구와 통계방법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IV. 사회망에 있어서의 친족의 선택성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활동과 선택성
1.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친족관계 변화	2. 도움관계와 선택성
2. 친족관계의 선택성과 상호교환성	V. 친족관계의 상호교환성
III. 연구의 설계	1. 핵가족과 양가부모
1. 분석의 틀과 가설	2. 핵가족과 양가형제
2. 조사방법	3. 핵가족과 결혼한 자녀
	VI. 결론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친족관계는 전통사회의 직계가족제도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 친족관계의 형태를 유지존속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뿌리깊게 내면화 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규범과 계사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 친족관계를 약화 내지 변동시키는 현은 산업화로 인한 공리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 및 시간적·경제적 제약성, 주거지역의 원거리 등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의 친족관계의 내용이나 형태는 이 두 측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은 직계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에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기능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부부관계 동등화, 노인들의 평균수명 연장, 부모권위 약화 등으로 인하여 핵가족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기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기능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내에는 자녀양육문제, 부부갈등문제, 가정경제문제, 일상적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1988년도) 일부를 요약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강사.

1)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관계」(한국연구원, 1971), 38-39면, 최재석, 「한국가족연구」(일지사, 1983), 541-551면.

2) W. J. Goode,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 Y. The Free Press, 1963), pp. 2-4.

일손, 노인복지문제, 실업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복지 제도가 아직도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핵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친족관계의 본질은 혈연으로 맺어진 생득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끈끈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는 핵가족의 친족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은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구조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종래의 권위적이고 의무적인 친족관계는 선택적이고 상호교환적(Reciprocity)관계로 변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3)</sup>

만일 종래의 의무적이고 무조건적인 친족관계가 선택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관계로 이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변화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핵가족의 경우 친족관계가 선택적인 특성을 띠었다면 그것은 종래의 친족관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한편 전통적 친족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도 산업화에 따른 변동요인 못지 않게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선조의 제사봉사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내린 사회규범이다. 봉제사의 규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속에 하나의 종교적인 신앙처럼 자리잡고 있다. 비록 친가를 떠나 도시에 핵가족을 이루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사봉사 의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장남의 가계 계승 및 전통적인 부계제 '家'사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상 봉제사의 관습과 부계제 '家'의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전통적인 친족관계는 좀체로 소멸되거나 붕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선택성의 문제는 도시가족이 그들의 사회적 활동과 도움관계에 있어 친족, 이웃, 친구 등의 사회망중 어떤 망을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러한 논의는 6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다.

(R. Firth, "Family and Kinship in Industrial Society," Th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8, (1964), pp. 65-87 : S. Litwak & I Selzeny, Primary Group Structure and Their Functions : Kin, Neighbors and Friends, ASR.(1969), pp. 465-481.

친족간의 상호교환(Reciprocity)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1960년대 후반기 이후부터 수행되고 있다. (B. N. Adams, "Interaction theory and the Social Network," Sociometry 30, (1967), pp. 64-78 : M. Sussman, "The Isolated Nuclear Family) Fact or Fiction?" Social problems, 6 (Spring, 1959), pp. 333-340.

등을 비롯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분석되고 있다.

4) 한국, 중국 및 일본등을 포함하여 동양 3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모두 「家」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家」는 먼 조상에서 계승되어 가는 초시간적 제도이다. 이 「家」는 현존의 가족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과 미래의 자손과 그리고 가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 C. Yang, A Chinese Villa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0, p. 81. : R. P. Dore, City Life in Japan, Routledge & Kegan Paul, 1958, p. 63.)

오늘날 중산층 핵가족은 산업사회의 운행 매커니즘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제약속에서 핵가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친족제도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친족과의 연대를 어떤 형태로 맺고 있는가를 구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에 있어 문제의식의 배경이다.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오늘날 도시중산층 핵가족이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내적 외적 불안정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이들의 친족망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핵가족의 친족관계를 비친족단위인 이웃, 친구, 자발적 집단등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도시 핵가족이 가족기능 수행에 있어 친족망과 비친족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핵가족이 이들 두 사회망 중 어떤 망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이고, 혈연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각 친족유대가 지배되고 있지만 20여년 동안의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의 물결로 개인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이 특히 젊은 세대에 수용되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핵가족의 친족간 상호도움에 있어서 공리주의적인 상호교환성이 존재하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호교환적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친족관계변화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친족관계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우선 우리나라 도시핵가족들이 어떤 연유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가족분화의 형성론적 관점에서 그 유형을 밝혀야 할 것이다.<sup>5)</sup> 핵가족의 유형에 따라 친족관계의 구조와 성격이 다

5) 일반적으로 핵가족의 유형은 세가지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첫째는 가족의 구성적 측면이며, 둘째는 구조적 측면이며, 셋째는 형태적 측면이다. 본 조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핵가족이란 첫번째 가족구성면에서 본 개념을 채택하였다. 구성적관점에서 본 핵가족은 부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로서 구성되는 세대를 핵가족으로 본다. 따라서 구성적 핵가족은 분가로 인한 새 세대의 형성은 물론, 부모 사망으로 인한 핵가족의 형성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적 핵가족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범주에서 친족과의 경계를 이루는 핵이라고 할 수 있다. (野久山久也, 現代家族の理論, 日本評論社, 1983, 35-38면.)

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 핵가족 유형은 전통사회 규범의 유물인 분가제도에 의한 핵가족,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직업이동의 핵가족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의 등장으로 인한 자발적 핵가족 등 여러 연유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핵가족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sup>6)</sup> 첫째, 「자연적 유형」으로서 지향가족(the family of orientation)과 생식가족(the family of procreation)이 함께 사는 대가족제도에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생식가족만이 잔존함으로써 비롯되는 자연적 핵가족의 유형을 들 수 있겠다. 둘째, 「분가 가족」으로서 이미 조선조시대부터 전래되는 장남외의 차·삼남의 분가로 인한 핵가족이다. 셋째, 「취업분가 유형」으로서 이는 장·차남을 막론하고 고용기회의 취득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있는 곳으로 지리적 이동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60년대 이후 나타난 핵가족화의 대부분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모가 장남을 어떤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분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발적 핵가족」이라고 하였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지향가족 부부의 가치관의 변화로 지향가족은 생식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가 특히 중상류층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지향가족과 생식가족간의 의견충돌 예를들면, 고부간의 불화등으로 핵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이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 핵가족의 가치체계는 전통사회의 가족규범과 일치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한편 산업화로 인한 합리주의와 공리주의 가치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이질적인 가치의 혼재와 이질적인 유형의 핵가족의 병존상태는 오늘날 핵가족의 친족관계의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인자들로서 파악된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핵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학설은 대체로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친족관계의 축소론과 확대론이 그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학설은 Parsons,<sup>7)</sup> Goode<sup>8)</sup>을 중심으로 한 구조기능론자들의 고립핵가족론이며, 후

6) 한국 핵가족 유형으로는 이농형 핵가족이 있다. 이농형 핵가족은 영세농가가 더 이상 영농을 유지할 수 없는 빈농으로 향토를 버리고 대도시로 이동하여 도시 생업의 기회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된다. 취업형 핵가족은 일정한 취업기회를 획득하고 있는데 반해 이농형은 취업기회없이 대도시에 불확실성하에 놓여있는 농촌으로부터 이농한 도시빈민층 핵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중산층 핵가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농형 핵가족은 제외되고 있다.

7) T. Parsons, "The Kinship System of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merican Anthropologist, 45 : 1943, pp. 22-38.

8) W. J. Goode, op. cit., pp. 2-4.

자의 경우는 Sussman, Litwak 등의 수정확대가족론이다.<sup>9)</sup> Parsons 등의 고립핵가족론은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함에 따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단위가 강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친족관계는 점차로 약화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효재는 이러한 이론은 선형적 진화론(線型的 進化論)의 영향으로서 인간사회의 변화를 너무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친족관계는 오히려 변천하는 사회상태에 적응하면서 상이한 형태로 다양하게 변형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면서 연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미국의 가족사회학자인 Sussman, Litwak 등도 기능론자인 Parsons나 Goode와는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도 친족간의 광범위한 친족 접촉과 상호도움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친족이 아직도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수정확대가족을 언급하고 있다.<sup>11)</sup> 수정확대가족은 고전확대가족에서의 지역적 접근성, 직업적 의존성, 연고주의 등도 요구하지 않으며, 확대가족에서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위계적 권위구조도 지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핵가족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핵가족과의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Sussman과 Litwak 등이 수정확대가족을 주장한 이래 도시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친족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도시 친족은 아직도 정서적, 원조적, 서비스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Adams도 지금까지의 도시 친족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서구의 도시 친족관계는 본질적으로 쌍계적이며, 도시인은 그들의 친족과 은정적이고 상호부조적인 일차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sup>13)</sup>

9) M. B. Sussman, "Relationships of Adult Children with their parents in the United States."와 E. Litwak, "Extended Kin Relations in an Industrial Democratic Society.", in Shanas and Streib(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 Gener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65).

10) 이효재, 전계서, 15면.

11) M. B. Sussman, op. cit., pp. 10-25.  
E. Litwak, op. cit., pp. 5-16.

12) E. Litwak, "Occupational mobility and Extended Family Cohe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5.(1960), p. 10.  
"Geographical mobility and Extended Family Cohe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5.(1960), pp. 385-394.

13) B. N. Adams, Kinship in an Urban Setting, Chicago : Markham Publishing Co., 1968, pp. 3-4.

우리나라에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가족의 친족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다.<sup>14)</sup>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산업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동을 통한 친족관계의 약화현상을 가져 온다고 하지만, 생산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제상으로는 관습상으로 유지·존속되는 친족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부계혈통 계승에 기반한 조상제사와 친족관계에 관한 혼인과 상제, 그리고 명절인사, 생신등의 경우이다. 물론 이 밖에 위기사 도움이나 일상적 도움, 심리적 도움 등이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으며, 부분적으로 비친족에게 의존함으로써 친족관계는 나름대로 유지되나 전통사회에서처럼 공동체적 의식속에서의 사회관계는 약화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친족관계는 따라서 유교적 종법제도에 기반한 공동체적 관계에서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음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 2 친족관계의 선택성과 상호교환성

선택성이란 친족을 포함하는 전체 사회망 속에서 친족을 택하느냐 또는 비친족을 택하느냐를 말한다.

핵가족의 대내적, 대외적 가족기능 수행에 있어서 시간적 금전적 제약성이 강한 경우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녀교육, 진학문제, 취업문제, 경제문제등 산업사회의 중요한 가족기능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보다 더욱 자원제약성의 구속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며, 여기에 도시 핵가족의 사회망 활용에 있어 선택성이 적용될 가능성은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선택성의 친족관계에의 적용은 Nye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데 그가 제시한 선택성의 가설을 살펴보자.<sup>15)</sup> Nye는 인간의 사회활동을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된 행동으로 파악한다. 즉 「비용이 같다면 사람들은 최대의 보상이 기대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또 「보상이나 비용이 같다면 사람들은 가치나 의견에 있어 자기와 같거나 비슷

14) 산업화, 도시화 이후의 우리나라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이효재, 전계서.

② 최재석, "도시 중류 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 [인문논집] 20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75).

③ Cho, Hyoung, "The Kin Network of the Urban Middle Class Family in Korea," Korea Journal(June, 1975).

④ 이동원,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1)," [논총] 제43집, 한국문화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1985).

⑤ 이영인, "한국도시사회의 가족주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15) I. F. Nye.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W. R. Burrel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 The Free Press.(1979). pp. 1-12.

한 사람과 결혼하여 사교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는 가급적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sup>16)</sup> 여기에서 전제되고 있는 가정은 인간행동에는 분별성과 합리성, 선택성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Firth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도시가족과 친족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개인 중심적인 선택성을 그 특징으로 제시한 바 있다.<sup>17)</sup>

도시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성의 문제는 실제로 1960년대 이후 친족과 이웃 등 여러 일차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Litwak는 친족은 영속성, 이웃은 긴급성, 친구는 유동적인 선택성이라 하였으며,<sup>18)</sup> Adams는 친족이 생득적, 의무적인 것에 비해 친구는 획득적, 정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sup>19)</sup>

친족, 이웃, 친구에 관한 이들의 견해는 모두 선택성의 시점에 관련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보면 친족관계는 임의적인 선택의 허용 범위가 적고 친구나 이웃 등 비친족은 그 허용범위가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핵가족의 사회망 활용에 있어서 친족의 선택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반면 이웃이나 친구 등의 비친족망의 활용도는 높을 것이다.

다음 친족관계의 상호교환성 문제를 살펴보자.

Homans는 교환(exchange)을 모든 인간행위를 설명하는 원리로 보고 「사회적 행위는 물질적 상품의 교환일 뿐만 아니라 승인의 표시 혹은 체면의 상징과 같은 비물질적 상품의 교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0)</sup> 여기에서 거래되는 교환 과정은 개인이 투자한 비용만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압력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이다. Homans의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서는 두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경제적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력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족관계에서의 교환관계는 이러한 교환관계의 동등화를 어렵게 만든다. 가족이나 친족관계에서의 인간관계는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진 비

---

16) 여기에서의 비용은 돈, 시간, 정보, 심리적 부담 내지 불쾌, 갈등을 포함하며 보상이란 자신에 대한 사회적 안정, 심리적 안정 내지 만족감등을 들고 있다.

17) R. Firth, "Family and Kinship in Industrial Society." The Sociological Review, monograph 8, 1964. pp. 65-87.

18) E. Litwak & I. Szeleny, op. cit., pp. 465-481.

19) B. N. Adams, "Isolation, Function and Beyond" American Kinship in the 1960's JMF, 32-4, pp. 590.

20) G. C. Homans,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63, 1958. p. 606.

형식적 관계이다. 친족관계에서 가족 성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덜 기능화되어 있고 친족간의 교환상황도 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관계에서 사용되는 거래적 자원들은 분명하게 규정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친족간에 거래되는 자원들은 각 사회의 규범이나 상호 역할기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각 가족이나 친족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친족간에 거래되고 있는 자원들은 다양하다.<sup>21)</sup>

가족이나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들간에 서로 교환되는 자원 그 자체보다는 교환과정에서 자원을 형성해 나가는 사회화 과정과 그 자원의 형성과 거래를 위해 필요한 협상 또는 흥정기술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친족간의 교환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설득되며 또한 여러가지 거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나면 행위자는 교환을 통해 최대의 보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족간의 교환관계의 특성이나 그 평가는 다른 가족원들이나 친족들이 실제 교환거래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족관계에 있어서 교환의 형태는 친족사회의 구조적 조건(권력, 금력등), 교환 대상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평가, 자원 가치에 대한 문화적 평가, 친족 성원들 각자가 선택하는 「흥정 기술」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동등한 교환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더우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가부장적제도, 수직적 윤리와 규범, 효의 의식구조가 뿌리깊게 내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친족간, 특히 시가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교환적인 관계를 기대하긴 어렵다. 특히 한국 도시핵가족인 경우 친족간 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문화적 평가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족관계는 상호교환성보다는 불균형성의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21)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상황에서 중요한 가치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자원, 위치적(Position)자원, 규범적(Normative)자원, 인격적(Personality)자원등이라 할 수 있다.

22) 조혜정, "부부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 / 비취업 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제15집, 1981. 38-47면.

23) 흥정은 교환행위를 하는 당사자중 하나 혹은 양자가 기존의 교환의 규칙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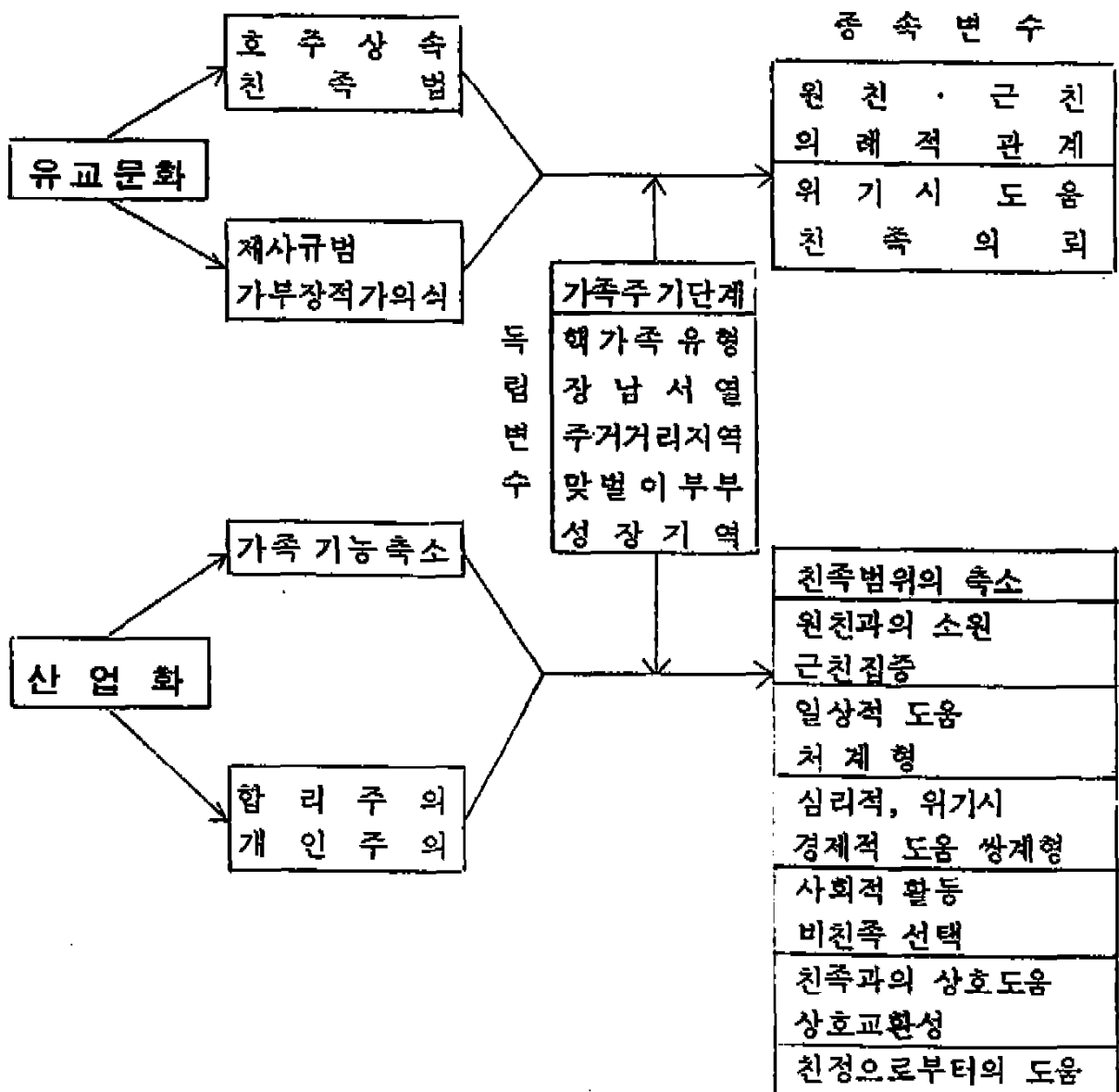


### Ⅲ. 연구의 설계

#### 1. 분석의 틀과 가설

##### 1) 분석의 틀

우리나라에 있어 친족관계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는 유교문화와 산업화로 가정하였다. 전통적인 친족관계를 지속시키는 유교문화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산업화과정이 사회망에 있어서 친족의 선택, 상호교환성 등의 친족관계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가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틀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개의 요인이 친족관계에 대해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우리나라 친족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

유교문화와 산업화의 힘은 핵가족 구성원의 가족주기 단계와 배경변수를 매개로 하여 친족관계의 내용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형태는 가족주기 단계와 개인적 배경변수를 포함하는 독립변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서 설정하였다. 본모형은 우리나라 친족관계를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매커니즘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다.

## 2)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설정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가족의 원친과의 관계는 의례적인 관계, 특히 관혼상제만이 간존함으로 더욱 소원해지며 종래의 공동체적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을 것이다.

둘째, 친가 형제등 근친과의 관계는 의례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일상적 가사의 도움, 위기시 도움, 심리적 도움에 있어서 상호도움을 주고 받을 것이다.

셋째, 종래의 친족관계는 의무적, 계도적, 권위주의적이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선택적이고 상호교환적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넷째,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친족관계의 선택성과 상호교환성의 유형이 변할 것이다.

다섯째, 부인의 친정으로 부터의 도움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2. 조사방법

### 1) 조사연구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가족주기 단계별 접근방법과 핵가족 부부를 동시에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 가족주기를 3 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류기준으로는 자녀성장에 따른 핵가족내의 자녀의 취학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 2) 사례조사

도시 핵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하여 사례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표본집단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지 조사 결과인 통계자료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친족관계의 내면적 측면과 제사에 관한 조사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 1) 조사대상지와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지역으로 서울시 동자구 상도동을 선정하였다. 상도동은 상도1동, 2동, 3동, 4동으로 구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도2동과 상도4동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로는 중산층을 선정하였다. 중산층은 그간 산업화 과정속에서 급격히 성장한 사회계층이며 이들의 의식구조나 생활양식은 종래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족관계 있어서도 이들의 경우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2) 표본추출

표본추출의 단위는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남편과 부인이다. 조사대상으로 남편 150명과 부인 150명을 표집하였다. 본조사에서는 한 가구내의 부부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므로 3단계의 가족주기에 따라 각기 50가구씩 1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표본수는 300명이다.

## 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사전에 작성된 설문지에 의한 면접에 의존하였다. 조사기간은 1987년 9월 중순부터 11월중순까지 하였다.

# 4. 조사도구와 통계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한 조사도구는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앞에서 고찰한 핵가족화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어 선택성, 친족간의 상호교환성, 한국 핵가족의 친족관계 성격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 도움관계에 대한 항목들은 Adams, Sussman, 이효재, 최재석등의 도시 친족관계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sup>24)</sup>

## 2)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통계기법으로 일원변량분석(one way analysis of Anova)F검증, Paired T검증, 요인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24) ① B. N. Admas, Kinship in an Urban Setting(Chicago : Markham, 1968), pp. 229-235.

② M. B. Sussman, "The Help Pattern in the Middle Cla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8.(1953), pp. 22-28.

③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관계(한국연구원, 1971).

④ 최재석, '도시 중류아파트 가족의 친족관계', [인문논집]20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75).

## IV. 사회망에 있어서의 친족의 선택성

### 1. 사회적 활동과 선택성

#### 1) 계

부인의 총표본 150명중 계를 하는 부인들은 43%인 64명이었다. 64명중 친족과 계를 하는 비중은 약 34%였으며 비친족과 계를 하는 비중은 66%로서 단연 친족보다는 비친족의 선호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족들과 계모임을 갖는 빈도에 있어 도시 핵가족 부인의 평균치는 1.2535이며, 비친족과의 계모임은 1.8014이다.

이러한 통계값들이 시사하는 바는 '계'처럼 개인적 친분을 중심으로 하는 소집단 사이에서 구성되는 경제조직은 그 취지가 친목과 화합을 지향하는 정의적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개 '계'조직 구성의 조건은 '계'의 가입대상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특히 경제적 신용도가 전전한가가 중요한 가입기준이며 따라서 혈연 인척중심구성으로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족보다는 비친족인 이웃, 동창 등이 더 선호되고 있음은 핵가족의 친족권 밖의 친족외적 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계'의 경우 이러한 '비친족지향성'은 가족주기 전단계에 걸쳐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계의 친·비친족간 선택성

#### 2) 여가활동

여가활동의 경우 남편과 부인은 모두 가족주기 전단계에 걸쳐 역시 비친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계'의 경우에서처럼 친족집단과 비친족집단 사이에서 여가활동의 선택은 확률값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 $P \leq .000$ ) 친족집단을 선택하는 경우의 남편의 평균치는 1.8167이며 비친족집단을 선택하는 경우는 2.1933으로 단연 후자 집단의 선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말휴가, 여행, 쇼핑 등은 도시 소비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여가활동은 현대 산업사회의 핵가족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내용이며 실제

라는 것을 시인할 때 더욱 그것의 의미는 크다고 본다.

오늘날 사회기능의 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사회에 있어서 핵가족에게 있어 새로운 정보의 교환은 중요하며 따라서 타인과의 접촉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친족보다는 비친족의 선택성이 상대적으로 가선용에 있어 단연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도시성장 부류일수록 비친족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농촌출신 성장을 배경으로 한 부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표 1〉 친족과 비친족간에 선택성 정도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자유도	p	방향
남편	친족	1.8167	0.498	-3.98	135	0.000	비친족
	비친족	2.1933	0.986				
부인	친족	1.9982	0.632	-7.25	129	0.000	비친족
	비친족	2.7090	1.090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비친족중 '이웃'과 여가를 보내고 있다는 빈도가 친족들과의 빈도보다 높게 나타나 오늘날 중산층 도시핵가족의 '가족이기주의'로 인한 이웃과의 단절상태는 현실에 있어 부인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도 자연적 핵가족 P부인과 자발적 핵가족 C부인은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이다. P부인은 한 지역에 18년을 계속 거주한 탓인지 이웃과의 접촉유대가 강하며, 대화가 잘 통하는 이웃과 한달에 두어번 커피시간도 가지면서 자녀 교육문제, 시부모와의 갈등문제, 남편과의 문제 등 대화를 많이 나눈다. 또한 P부인은 매해 가을 떡을 하면 이웃과 함께 모두 나누어 먹는다. 자발적 핵가족 C부인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층에 사는 주부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낸다. 아파트 한 집에서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반찬거래'를 하여 서로 나누어 먹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오전시간에는 커피나 차마시는 시간도 종종 갖는다 한다.

## 2. 도움관계와 선택성

### 1) 일상적 도움

일상적 도움에 있어서 친족과 비친족중 핵가족이 어느 쪽을 활용하는가는 핵

25) 박영신, "한국사회발전론서설,"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3.

근대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존속되어 오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사회적 합리화 장애가 되고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밝히고 있으며, 박영신은 이를 "가족주의적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가족 기능수행의 중요한 측면이다. 종래 전통적인 직계가족제하에서는 대부분 집안일들은 친가부모, 형제들로 부터의 지원을 받는다. 친가부모와 떨어져 사는 핵가족은 오늘날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친족망을 사용코자 하겠지만 거리관계상 불가능한 경우가 보통이며 따라서 친족망 활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친족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핵가족은 비친족망의 활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친족망과 비친족망 사이의 선택은 가족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일상적 도움의 경우 가족주기 1단계에 있어서는 친·비친족간 차이의 유의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P \leq .05$ ) 1단계에서 친족의 선택경향성에 있어 평균치는 2.0632이며 비친족은 1.7131로서 친족망의 활용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주기 2단계에서는 친·비친족간의 선택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geq .05$ ) 이러한 추세는 가족주기 3단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 $P \geq .05$ )

〈표 2〉 가족주기 단계에 따른 일상적 도움의 선택성 - 부인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자유도	p
가족주기 1 단계	친 족	2.0632	0.528	2.79	48	0.008
	비친족	1.7131	0.763			
가족주기 2 단계	친 족	1.7046	0.528	0.62	49	0.537
	비친족	1.6417	0.675			
가족주기 3 단계	친 족	2.2435	1.010	-0.77	43	0.447
	비친족	2.3788	1.078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고 출산, 아동의 양육 등 주부일손이 바쁜 가족주기 1단계에 있어서 일상적 도움은 대체로 친족을 선택하나 2단계와 3단계에 와서는 그러한 1단계에서의 잔일은 없어지며 주로 김장, 집보아주기 등 도움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친족망의 활용이 높아져 兩집단의 활용도는 거의 비슷해 짐으로써 핵가족의 양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조사에서도 일상적 도움은 분가형의 K부인만 제외하고 대부분 '과출부'를 활용하고 있다. 자발적 핵가족 C부인은 결혼초기에는 주로 친정어머니가 자주 도와 주었는데 이제는 친정어머니의 도움과 참견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진다고 하면서 '과출부'를 활용하여 자기 방식대로 살릴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결혼초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친정이나 시가에 퇴퇴하였지만 결혼하여 부부와 자녀들만의 핵가족과 10년쯤 살게되면 나름대로의 자기가족단의 생활습관과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친척보다는 비친족인 과출부나 이웃에게 의뢰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편하다고 C부인은 설명하고 있다.

## 2) 심리적 도움

도시 중산층 핵가족의 심리적 문제로 부부갈등, 자녀교육문제, 직장문제 등이 있다. 전통 직계가족제하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부간의 갈등문제는 전통적인 수직적 윤리의 지배하에 있음으로써 부부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화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교윤리를 갖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오늘날의 핵가족에게 부부갈등 문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가족주기단계에 따른 선택성 방향 - 남편

		평균치	표준편차	t값	자유도	p	방향성
1 단계	친족	1.9418	0.675	1.02	47	0.312	중간형
	비친족	1.8425	0.739				
2 단계	친족	1.7126	0.588	0.25	49	0.804	중간형
	비친족	1.6850	0.654				
3 단계	친족	2.1833	0.839	1.74	40	0.089	중간형
	비친족	2.0271	0.912				

〈표 4〉 가족주기단계에 따른 선택성의 방향 - 부인

		평균치	표준편차	T. Value	자유도	p.	
1 단계	친족	1.6990	0.499	1.22	46	0.229	중간형
	비친족	1.5812	0.710				
2 단계	친족	1.6286	0.528	1.10	47	0.277	중간형
	비친족	1.5242	0.631				
3 단계	친족	2.1673	0.950	2.85	37	0.007	친족형
	비친족	1.7800	0.636				

남편의 경우 각 가족주기 단계별로 두 집단간 차이는  $P \geq .05$  (1 단계),  $P \geq .05$  (2 단계),  $P \geq .05$  (3 단계)로 나타났다. 즉 남편은 심리적 도움에 있어 친족 집단과 비친족집단을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부인의 경우도 1 단계와 2 단계에서 모두 차이가 없으나 3 단계에서는  $P \leq .05$ 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친족집단의 도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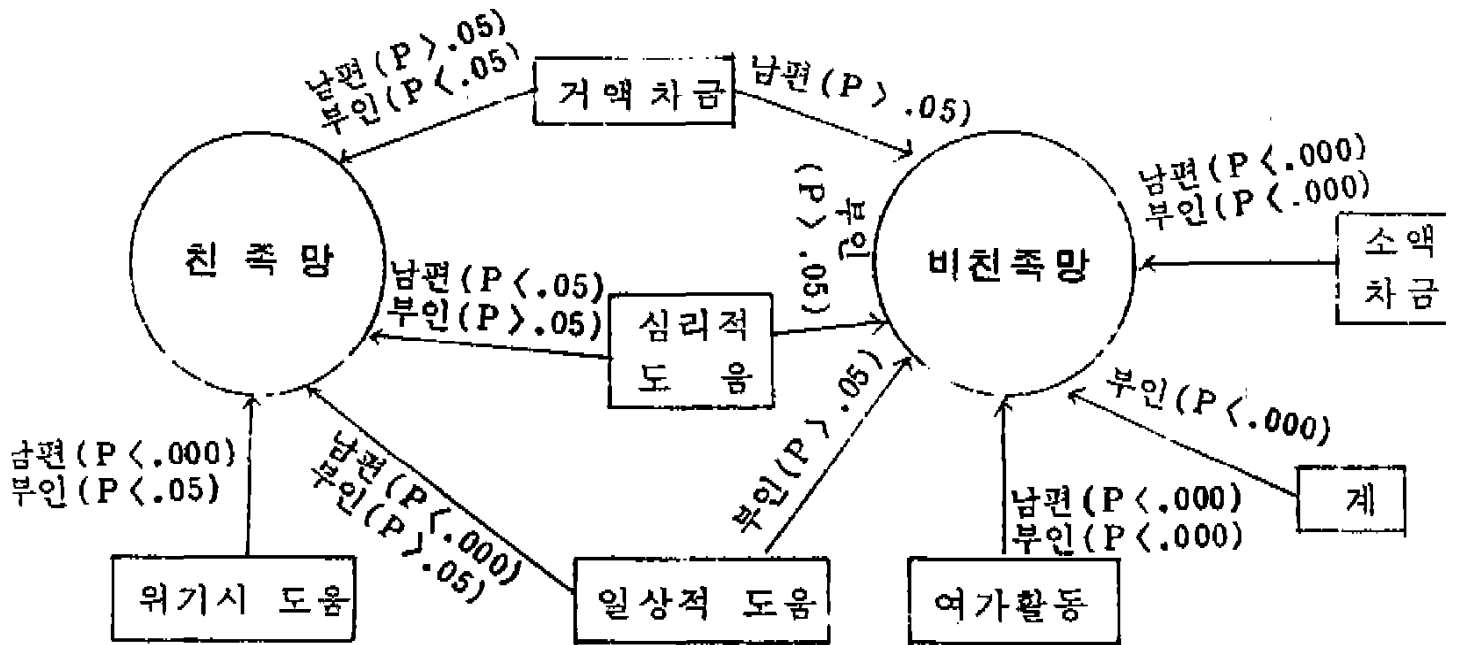
## 3) 경제적 도움

경제적 도움은 소액의 경우 부인은 모두 가족주기 단계에서 친족보다는 비친족을 선호하고 있다. ( $P \leq .05$ ,  $P \leq .05$ ,  $P \leq .000$ ) 그러나 남편의 경우는 1 단계와 2 단계에서는 ( $P \geq .05$ ,  $P \geq .05$ ) 유의한 차이가 없음으로써 친족과 비친족을 동시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 단계에 와서는  $P \leq .05$ 로 비친족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으로써 친족과의 돈거래는 드문 것으로 밝혀졌다.

#### 4) 위기시 도움

위기시에 도움을 친족에 요청할 것인가는 그 위기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만 친족집단과 비친족 집단중 어느 집단을 더 선호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는 친족집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두 집단간 차이에 있어 남편의 경우( $P \leq .000$ )와 부인의 경우( $P \leq .05$ )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사고, 부도, 질병 등 사활이 걸려있는 위기상황에서 역시 혈연과 인척이 사회망들 중에서 핵가족의 가장 가까운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사회망에 있어서의 친족 선택성

### V. 친족관계의 상호교환성

친족관계는 구체적으로 친족 구성원간의 「오감」과 「주고받음」의 관계이며 따라서 쌍방의 상호작용 내지 교환성이 작용한다. 우리는 친족간의 상호교환성을 핵가족과 양가부모, 핵가족과 양가형제, 핵가족과 결혼한 자녀, 핵가족과 양가사촌 그리고 비친족 등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상호교환성 점수의 평균치가 2.9와 3.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상호교환적이며, 평균치가 2.9이하는 핵가족이 상대방 친족에게 도움을 주거나 방문을 하는 일방적인 친족관계를 뜻한다. 평균치가 3.1보다 큰 경우는 상대방 친족이 핵가족



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방문을 하는 對 핵가족 일방적 친족관계를 뜻한다. 전자를 핵가족 친족관계의 「일방급부형」(-), 후자를 「일방취득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쌍방의 「주고받음」과 「오감」이 비슷한 경우는 「교환형」(0)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친족간 상호교환성 기준부호

	평균치	부호
일방급부형	2.9이하	-
일방취득형	3.1이상	+
교환형	2.9-3.1	○

## 1. 핵가족과 양가부모

### 1) 남편의 경우

일방적 도움에 있어서 친부모와 처부모 사이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친부모에 대한 일상적 도움들은 모두 상호교환성(0)을 보였으며 그 밖의 도움의 경우는 대부분 일방적 급부형(-)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처부모에 대한 일상적 도움은 핵가족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일방적 취득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적 도움의 모든 경우에 처가로 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음은 처부모의 출가한 딸에 대한 애착과 보호심은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일상적 도움에 있어서 오늘날 도시 중산층 핵가족은 친가부모로부터 도움보다는 처가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더 받음으로써 일방적 취득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심리적 도움의 경우 특히 부부갈등문제에 있어 양가 부모로 부터의 조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에서는 부부갈등문제는 주로 친구나 직장동료, 또한 대화가 잘 통하는 교인이나 이웃에게 모두 의논한다. 본 사례조사에서 4 케이스중 분가형 K는 남편과의 성격마찰에서 오는 갈등문제를 혼자 해결하거나 때로는 시어머니가 윗시누이에게 남편의 자탈때 모습, 성격등을 물어보고 이들과 의논하여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산층 핵가족인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액인 경우 양가부모나 형제로 부터 어느정도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인 은행등에서 차금을 하고 있다.

사례조사에서 보면 중산층 핵가족의 양가부모와의 경제적 상호교환성 정도는 시가나 처가

〈표 6〉 남편과 양가부모와의 상호교환성 정도

	부 모								부호	장 인 장 모								상인 상호
	없음	1	2	3	4	5	M	S·D		없음	1	2	3	4	5	M	S·D	
외 출 시 자 녀	69	14	13	25	19	10	2.975	1.265	0	72	9	6	23	27	21	3.525	1.234	+
예산, 아픈경우	63	20	11	21	27	8	2.908	1.317	0	50	9	15	21	27	23	3.421	1.276	+
장, 장남금액	65	13	15	22	21	14	3.094	1.306	0	57	5	10	22	24	32	3.721	1.199	+
손 남 이 사	66	13	21	22	20	8	2.869	1.22	0	59	10	16	21	21	23	3.341	1.327	+
집 안 잔 일	68	16	16	24	18	8	2.795	1.286	0	63	10	9	25	2	23	3.425	1.3	+
자녀교육조언	71	17	18	23	11	10	2.734	1.298	-	69	15	12	26	15	13	2.368	1.318	+
부 부 갈 등	68	15	7	28	17	15	3.122	1.328	0	64	12	5	33	15	21	3.326	1.297	○
가구살림기부	66	24	22	21	10	7	2.452	1.255	-	66	13	17	28	15	11	2.929	1.24	+
소 액 보 조	59	29	18	20	14	10	2.538	1.369	-	58	16	15	31	12	18	3.011	1.338	○
거 액 보 조	68	19	14	23	13	13	2.841	1.374	0	66	13	11	28	14	18	3.155	1.331	○
급한사고, 질병	58	24	21	22	14	11	2.641	1.339	-	57	13	22	23	28	27	3.043	1.318	○
명 절	53	47	25	18	4	3	1.876	1.053	-	56	30	21	31	6	6	2.33	1.177	-
성 탄 절	70	30	14	27	4	5	2.25	1.196	-	68	22	13	34	9	7	2.549	1.209	-
생 일	55	43	23	20	3	6	2.011	1.171	-	51	34	17	34	9	5	2.333	1.187	-
계 사	62	46	15	15	9	3	1.955	1.193	-	70	24	16	25	6	9	2.5	1.302	-

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분가형 핵가족 K와 자발적 핵가족 C는 시부모를 한달에 한번씩 생활비를 드리는 일방적 급부형이며, 특히 분가형 K핵가족도 부인의 친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친정부모가 사 주었고, 남편이 정식 의사가 아닌 인턴일 때도 친정부모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았다 한다. K의 경우는 친정부모로부터의 일방적 취득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9년전 친정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났을때 자발적 핵가족 C의 남편은 친정부모에게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드리고, 친정 여동생 대학등록금도 두어번 보태 주는 등 친정에 대한 일방적 급부형으로 나타났다.

위기시도 친가부모에 대해 일방적 급부형이나 처가부모에 대해서는 상호교환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가부장적 가치의식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아들은 부모가 위기시 자식으로서 마땅히 도와야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sup>26)</sup> 그러나 처가는 '사위는 百年之客'이란 속담과 같이 딸이나 사위에게 위기시 신세를 졌으면, 처가부모는 이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의례적 관계에 있어서 핵가족은 양가 부모에 대해 일방적 급부형으로 나타내

26) 이효재, 전계서, 73면.

한국의 현실은 경제적 실정에 있어서나 관념적 가치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의존과 부조는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자녀사이에는 혼인후에도 상호도움의 기대가 있으며 실제로 널리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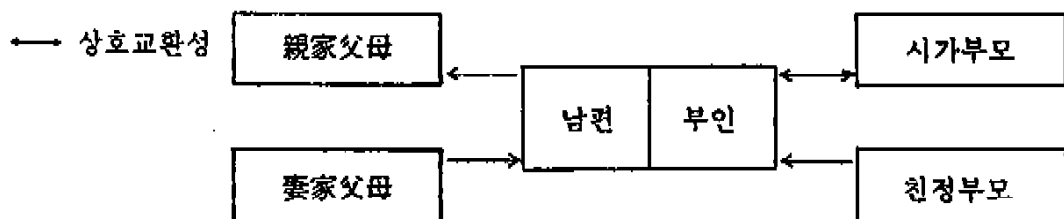
고 있음은 제사, 부모생신, 명절 등 의례적 관계는 부모중심이 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부인의 경우

일상적 도움의 경우 친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한 것은 남편과 같으나 시부모에 대해서는 남편과 약간의 괴리를 보여 주었다. 즉, 남편은 집보아주기와 출산시 도움의 경우 일방적 취득형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은 상호교환성(1)을 나타내고 있어 시가로 부터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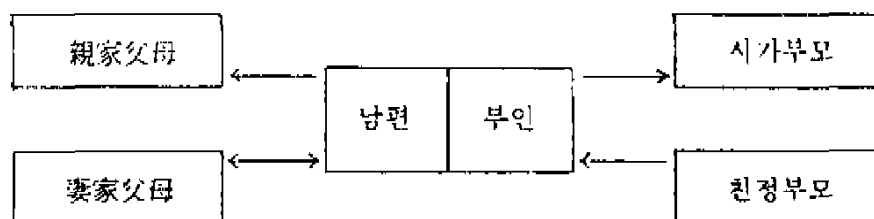
〈표 7〉 부인과 양가부모와의 상호교환성 정도

	시 부모								친정 부모								친정 부모	
	순수	1	2	3	4	5	M	S·D	이부모	없음	1	2	3	4	5	M		S·D
외솔시골	55	29	12	15	18	11	2.617	1.461	-	57	18	10	17	21	27	3.312	1.482	+
외솔시골	71	19	12	18	11	19	2.967	1.468	0	56	15	7	15	22	33	3.551	1.455	+
예산, 아문골	61	19	19	15	19	17	2.955	1.437	0	45	12	13	10	32	38	3.676	1.376	+
광, 광담골	59	24	19	18	16	17	2.819	1.451	-	44	11	10	24	29	32	3.575	1.294	+
손남, 이사	52	24	24	20	17	12	2.66	1.351	-	43	12	13	19	39	24	3.467	1.276	+
검안산 일	56	23	28	21	11	8	2.484	1.292	-	46	19	10	21	33	21	3.26	1.379	+
작년교육조	71	19	19	16	19	6	2.671	1.288	-	42	12	14	31	20	11	3.045	1.203	○
부부갈등	66	12	16	25	22	9	3	1.212	0	55	12	10	28	31	14	3.263	1.213	+
가구, 살림기구	66	29	20	23	6	3	2.185	1.119	-	57	19	19	28	20	7	2.753	1.222	-
소액보조	53	39	24	18	13	3	2.144	1.181	-	45	23	18	30	20	14	2.848	1.329	+
거액보조	66	28	19	17	10	10	2.465	1.375	-	59	15	11	27	19	19	3.176	1.347	+
금한사교, 질병	57	38	23	15	10	11	2.309	1.28	-	45	20	18	26	18	23	3.057	1.413	-
명절	44	61	27	11	5	2	1.679	0.971	-	42	33	19	26	29	10	2.583	1.34	-
성탄절	72	31	25	17	5		1.949	0.938	-	70	21	17	22	14	6	2.588	1.26	-
생일	45	57	24	18	5	2	1.781	1.019	-	40	34	23	32	18	3	2.391	1.166	-
제사	55	52	18	15	9	1	1.832	1.078	-	62	26	18	22	13	9	2.557	1.320	-



〈그림 4〉 일상적 도움의 상호교환성 - 양가부모와의 관계

부부갈등의 경우 친정어머니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있어 남편의 경우와 같다. 경제적 도움에 있어서 부인은 친정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일방적 취득형을 나타냈으나 이는 남편의 상호교환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5〉 경제적 도움의 상호교환성 - 양가부모와의 관계

위기는 시가부모에게 일방적 도움이 크며 친정부모에게 대해서는 교환형으로 나타나 남편의 경우와 같았다.

의례적 관계도 양가부모에 대해 일방적 급부형(-)을 나타내고 있음은 남편과 역시 같게 나타나고 있다.

부인의 경우를 전체적으로 볼 때 흥미있는 것은 친정쪽으로부터는 많은 도움을 받는 일방적 취득형으로 나타나 있고, 한편 시부모에 대해서는 많은 봉사과 도움을 주는 일방적 급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핵가족의 직계친족관계에 있어서의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볼 수 있겠다.

## 2 핵가족과 양가형제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면 형제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횡적인 친족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횡적관계하에서 상호 「오고 감」에 있어 또는 「주고 받음」에 있어 균등한 상호교환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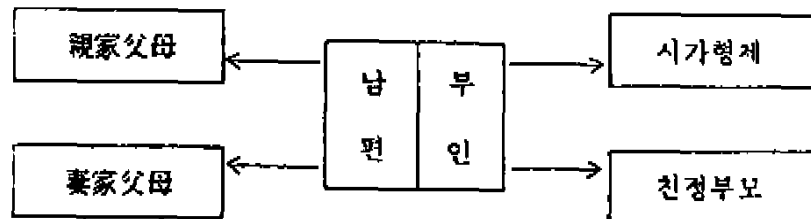
그러나 남편의 경우나 부인의 경우 거의 모든 친족관계의 내용에 있어 일방적인 급부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sup>28)</sup> 다만 남편의 경우

27) 이효재, 전계서, 8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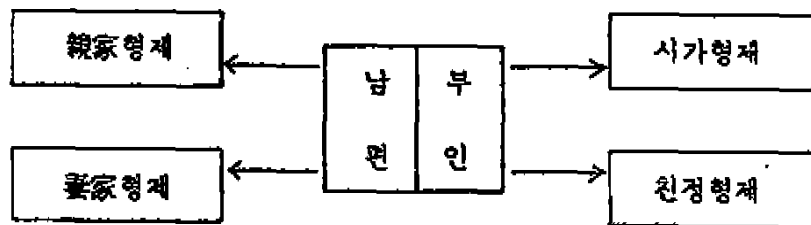
형제간에도 부모자녀간에 못지않게 경조시, 병 및 계절적인 가정일이나 행사등을 당했을 때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친정형제간에는 외출시 집이나 자녀 보아주는 일, 김장이나 장담그는 일, 집안잔일, 의례적관계등은 상호 교환형으로 나타났으나 시형제와는 손님처를 때와 생일안 경우 상호교환형이나 그외는 일방적 급부형으로 나타났다.

28) 「도시인의 친족관계」에서도 형제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현상에 대하여 형제에게서 받는다는 사람의 비율보다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음을 볼 수 있다.

일상적 도움과 심리적 도움 등의 경우에 있어 상호교환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부인의 경우도 출산시 도움을 받거나 집보는 일, 애기들보는 일 등에 있어 상호교환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림 6〉 일상적 도움의 상호교환성 - 양가 형제와의 관계



〈그림 7〉 심리적·경제적 도움의 상호교환성 - 양가 형제와의 관계

그 밖의 친가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남편이나 부인이 모두 일방적 급부형을 보여 주어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제에 대한 일방적 급부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를 핵가족이 형제들에게 '배운것'만을 생각하고 '받은것'은 과소평가하는 일종의 자기과시 심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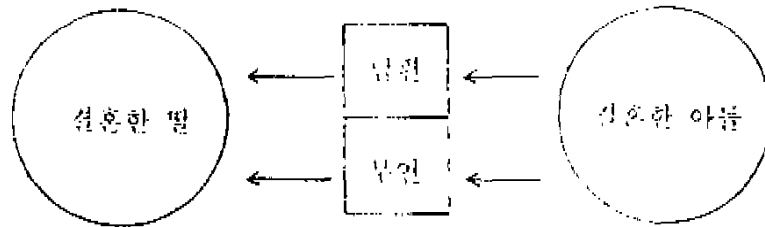
### 3. 핵가족과 결혼한 자녀

자녀가 결혼하여 생식가족으로 분화하여 또 하나의 독립적인 가족단위를 이룰 때 지향가족으로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관계는 매우 흥미있는 조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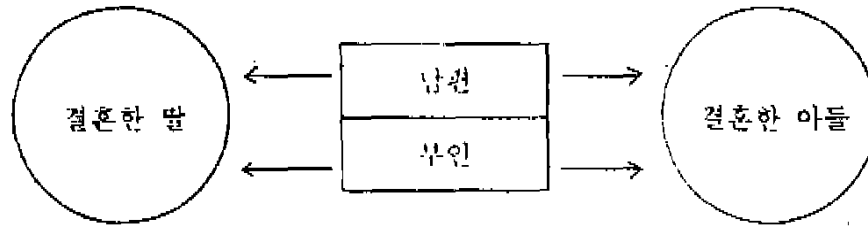
남편의 경우나 부인의 경우 공통적인 점은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일상적 도움, 심리적 도움, 위기시 도움, 경제적 도움 등에 있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향가족(핵가족)이 결혼한 아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방적 급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남편은 김장, 이사갈때 도움 등의 경우에 아

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부인은 남편보다 결혼한 아들을 더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향가족의 생식가족에 대한 지원이 큰 것은 역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애착심과 보호심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8〉 일상적 도움의 상호교환성 -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



〈그림 9〉 위기시·경제적도움의 상호교환성 -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

이 밖에 양가사촌과의 친족관계를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상적 도움에 있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일방적 급부성을 보여 주었다.

〈표 8〉 남편과 부인의 양가 사촌과의 상호교환성 정도

		사 촌							처 사 촌										
		없음	1	2	3	4	5	M	S·D	사촌	없음	1	2	3	4	5	M	S·D	처사촌
남편	상호도움	63	19	15	51	2		2.455	0.934	-	85	13	4	44	3	1	2.615	0.193	-
부인	상호도움	81	17	17	30	5		2.333	0.934	-	79	11	10	45	5		2.62	0.834	-

또한 남편의 이웃과의 상호도움의 경우에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치는 거의 2.9에 육박하고 있어(M=2.7241) 교환성에 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동창과의 관계도 상호교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이웃과 동창과의 상호교환성은 남편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교환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친족과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 취독형이나 일방적 급부형과는 달리 상호교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비친

〈표 9〉 남편과 부인의 비친족간의 상호교환성 정도

		이								등								동향	
		없음	1	2	3	4	5	M	S·D	이웃	없음	1	2	3	4	5	M		S·D
남편	상호도움	45	8	10	81	4	2	2.724	2.802	0	28	9	17	93	3		2.735	0.672	-
부인	상호도움	23	14	14	93	5	1	2.734	0.742	-	39	7	17	81	6		2.775	0.642	-

족이 주거지역, 직장, 학교, 교회등 형식적인 사회조직속에서 맺어진 균등한 사회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그 「오고 감」은 상호교환적이고 상호균등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끈끈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과의 관계는 위의 분석에서 본 바와같이 비균등적인 경우가 허다하였다.

## VI.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의 도시핵가족의 친족관계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망에 있어서 친족의 선택성 및 친족관계의 상호교환성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 보았다.

특히 조사방법에 있어 남편과 부인을 동시에 조사해 보았으며, 또한 가족주기단계를 셋으로 나누어 전생애 주기에 걸친 가족관계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서 밝혀진 내용들 중에서 특징적인 측면만을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한국의 도시핵가족의 친족관계의 가족사회학적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하며, 특히 친족관계의 어떤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핵가족은 그의 가족기능수행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그에게 주어진 사회망을 선택·활용하고 있다. 핵가족이 이에 있어 친족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비친족을 선택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위기시 도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에 비친족망을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계, 여가선용, 경제적 도움 등의 경우에는 비친족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도움과 일상적 도움은 친족과 비친족을 동시에 택하고 있었다. 친족관계의 선택성에 관한 조사결과 가족주기 단계는 통계적으로 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 지적해야할 점은 핵가족이 해결하

기 어려운 일일수록 친족을 선택하며, 쉬운 일일수록 비친족망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위기적 상황에 친족이 선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리적 도움, 일상적 도움 등은 분계성을 띤 가족기능이긴 하지만 긴박한 사정이 아닌 경우이며 핵가족은 이들 가족기능을 친족과 비친족을 모두 활용하고 있음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별로 분계성이 없는 게, 여가활동은 단연 비친족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에 있어 대부분의 가족기능이 친족집단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오늘날 산업사회에 있어 대부분의 가족기능 수행이 비친족망에 의존하고 있음은 하나의 큰 변화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핵가족이 친족과의 여러 형태의 「오 감」과 「주고 받음」에 있어 상호교환성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분석의 결과는 친족간 상호교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부모일방적 급부형과 처계일방적 취득형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핵가족은 친가 부모에 대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음으로써 일방적 급부성이 강했으며, 한편 처가로 부터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처계일방적 취득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의 가족기능수행에 있어서는 친정으로부터의 지원은 종래의 직계가족제하에서 친가로 부터의 지원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친정지원」으로 「시가봉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對친정 친족관계가 핵가족 기능수행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가 크게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지나친 「과잉친정지원」이 핵가족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처계 치중적인 친족관계가 오늘날 핵가족제도의 부계중심가족체계의 유지 존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부계중심가족제도를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약자의 강자에 대한 공납의 성질을 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처계치중의 지원현상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 핵가족은 형태적인 의미에서의 핵가족이지 핵가족의 구조적인 요건인 가족기능 충족에 있어 자립을 하고 있는 Parsons의 자립적 핵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결혼한 자녀와의 교환성에 있어서도 자기부모와의 교환성의 특징인 「친정지원」에서 나타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흥미있는 관심사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친족관계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의 의식구조 변화, 사회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다면 그로 인해 미래의 친족



관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인지는 하나의 문제로서 제기된다.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했을때 유추되는 우리나라 핵가족의 친족체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할 것인가?

핵가족의 친족관계는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과정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인의 경우 「친정지원」으로 「시가봉사」하는 친족관계는 오늘날 한국의 도시중산층 핵가족만이 지니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으로 지적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핵가족, 특히 가족주기 1단계의 핵가족은 형태적인 면에서의 핵가족이지 구조적으로는 아직도 친정의존적인 핵가족이다. 도시핵가족은 친족관계에 있어 형식적인 의례적 관계에 치중하는 근친집중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핵가족의 사회망 활용에 있어 비친족의 선택형, 「친정지원」으로 「시가봉사」하는 급부일방형 등, 예전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장자상속 호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친족법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굳히면서 한편 그것은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가부장적 국가이념에 직결시킴으로써 가족제도의 민주화를 지연시켰다. 앞으로 친족법이 개정되어 현행 장자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결혼제도 및 가족관계의 민주화를 더욱 지향한다면 가문의 승계의식과 부계 친족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 친족관계는 의무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에서 정의적이고 선택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해 볼 수 있다. 개인의 생명의 근본과 가족의 뿌리를 부계시조에 두는 조상숭배와 제사가 존속되는 한 부계혈족에 기반한 직계가족의 친족관계가 쉽사리 단절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로만 유지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